수시 한달 앞…당락 좌우할 변수는

복수지원 늘어 상위권 대학 경쟁률↑

수시모집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9월 모의고사 이후 수시모집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수험생들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목표한 대학의 요강을 보고 지원할 대학을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에게 유리한 전형을 찾아 지원전략을 세우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합격을 위해서는 올해 수시의 변수를 미리 전망해보는 능력이 필요하다. 진학사의 도움으로 올해 수시의 특징과 변동 사항을 점검해보자.

자격 완화…입학사정관 지원율 상승

지원대학 전형 분석 '맞춤전략' 필요

◇상위권 대학 경쟁 더욱 치열해질 것=올해 입시는 재학생이 1만 5000여 명이 늘어난 54만 7000여 명으로 예상된다. 또한 9월 이후 반수생의 유입을 고려한다면 졸업생도 16만여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돼 수험생 증가에 따라 상위권 대학의 지원자 수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수시모집 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60.9%로, 이는 대부분 상위권 대학에서 증가된 인원이다. 상대적으로 정시 모집인원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안심리로 인해 수시 복수지원 경향은 예년보다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내년부터는 교과과정이 개정돼 인문계열도 미적분에 대비해야 하는 만큼 재수에 부담을 느낀 수험생들 역시 복수지원 경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시에서는 같은 차수일 경우 전형간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서울시립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에서 중복지원을 허용하는데, 이로 인해 경쟁률이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 실시 대학의 경쟁률 상승할 것=올해 수시에서는 지난해보다 5개 늘어난 17개 대학에서 적성검사를 실시한다. 적성검사는 합격·불합격에 미치는 영향이 커 학생부나 수능 성적에 자신이 없는 수험생들이 선호한다.

적성검사 전형이 있는 대학 중 가톨릭대·강원대·고려대(세종)·한양대(ERICA)를 제외한 13개 대학은 수능 최저 학력기준이 없고, 수능 이후 실시되는 수시2차에서 모집하는 대학들도 많아 수능 성적이 낮은 수험생들이 적성검사의 변수를 노리고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적성검사는 대학의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어 앞으로도 적성검사 실시대학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율 상승할 것=이미 지난해부터 안내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올해는 특히 대학별로 외국어 성적이나 수상실적 등의 지원자격 기준을 완화 또는 폐지했기 때문에 입학사정관 전형의 지원율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험생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을 중심으로 입학사정관 전형이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수험생들에게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논술전형의 경쟁률 올라갈 것=수시에서 논술을 실시하는 대학은 2개 감소했지만 논술의 영향력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했다. 기존에 논술을 실시하던 대학의 경우 반영비율을 증가시킨 것은 물론 선발 인원도 확대하고 있는 추세다. 지난해 입시결과에서도 학생부중심 전형보다 논술중심 전형의 경쟁률이 더 높았다. 많은 학생들이 다른 평가요소가 조금 부족하더라도 논술로 역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이러한 논술 반영비율 증가를 기회로 노릴 것으로 보인다.

◇수시 미충원 인원 늘어날 것=올해 수시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첫째, 복수지원과 대학 내 동일 차수 전형 간 중복지원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수시는 정시와 달리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복합격자가 발생할 경우 결원된 인원을 충원하지 않아 미충원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둘째는,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런 이유로 내신도 좋고 논술 실력도 뛰어난 수험생들이 조건부 합격을 하고도 최저학력기준 미달로 불합격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복수지원을 한다 해도 어차피 최저학력기준이 비슷한 경쟁대학의 유사 전형에 지원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 대학에 동시에 불합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보다 많은 인원이 수시전형에서 미충원되어 정시로 이월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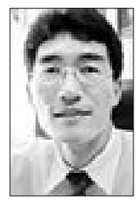
진학사 김희동 입시분석실장은 "수시 모집인원이 늘어났지만 수험생의 증가로 경쟁률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과 전형에 대한 정보탐색이 중요하다"며 "목표대학을 정했다면 경쟁대학과의 비교, 올해 입시의 변수 등을 고려해 전형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할아버지 건강하세요" 살레시오 초등학교 기영민·김민재·김상우군 등 5·6학년생 6명이 지난 11일 담양 '예수 마음의 집'을 찾아 노인들에게 합창 공연을 선사한 뒤, 말동무와 함께 안마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여대 박병건교수

비자나무 추출물 항균효과 밝혀내



광주여자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병건 교수 〈사진〉가 비자나무 추출 물질이 미생물에 대한 강력한 항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 주목받고 있다.

박 교수가 최근 발표한 논문은 한국의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비자나무의 잎과 열매에서 추출된 기능성 물질에 대한 항균성 및 항산화성에 대한 연구'로 비자나무 물질이 병원균으로 알려진 여러 미생물에 대해 항균 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항산화 효과도 탁월하다는 사실을 입증해냈다.

이 논문은 세계의 유수한 식품관련 우수 연구들과 함께 세계음식과학기술전문가협회의 2010년도 연례 회의(7월)에 발표됐다.

/채희종기자 chae@

조선대 호남최대 기술지주회사 세운다

자본금 60억 규모 설립계획서 제출

조선대학교가 오는 9월 교육기술과학부 인가를 받아 제주를 포함한 호남지역 최대의 산학협력기술지주회사(이하 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조선대는 오는 9월 설립을 목표로 이달 중순 교과부에 설립기술지주회사 설립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기술지주회사란 대학이 보유한 기술을 출자해 자회사를 설립, 일정한 지분소유를 통해 자회사로부터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말한다. 즉 대학의 연구개발로 획득한 특허권을 현물출자해 자회사에서 직접 사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지난 2008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 현재까지 10개 대학이 설립인가를 받았다. 조선대 기술지주 주식회사는 현물과 현금을 합해 총 자본금 60억원 규모로 매년 현금을 추가 증자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현물 투자하는 특허권은 김태형 교수(의학과)의 항암신약개발 특허기술과 박윤경 교수(생명공학과)의 화장품 및 생활용품 등에 활용되는 펩타이드 특허기술로서 세계적인 원천기술에 해당한다. 이 특허기술은 정부공인 특허가치 평가기관으로부터 그 부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 사업 성공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기술지주회사 출범 이후 국내외 투자기관 등과 협상을 통해 자회사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선대 기술지주회사는 대규모 정부 연구 과제를 통해 창출된 신기술에 대해 전략적으로 특허권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특허기술 라이센싱 방식 ▲특허권 매각 방식 ▲국내외 투자유치를 통한 자회사 설립으로 직접 사업화하는 방식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괄목할만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행남 조선대 산학협력단장(기계공학과)은 "기술지주회사 설립을 기점으로 성공적인 사업을 전개해 대학의 연구개발 선순환 구조를 정착함과 동시에 대학 재정 기여는 물론 졸업생 취업률 제고 및 대학의 사회적 공헌 실천 등 조선대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조선대 치과용 장비·부품 지역혁신센터

국제공인 인증 획득 본격 교정업무

기술표준원(KOLAS)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정을 획득한 조선대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 지역혁신센터(센터장 강동완)가 최근 대학 첨단산학캠퍼스 1층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정업무에 들어갔다.

조선대는 지난 2002년 부품산업테크노센터(센터장 이행남)가 전국 대학 가운데 최초로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증을 획득한데 이어,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RIC가 국제공인교정기관 인증을 획득해 국제수준의 교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치과용 정밀장비 및 부품RIC는 광주·전남지역 산업체들의 계측기 교정 업무를 수행하고 의료산업 전환에 따른 생산품 신뢰성 시험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교정기관을 설립했다.

이 교정기관에서는 ▲교정분야 ▲시험 및 측정분야 ▲시제품 가공분야 ▲후처리 가공분야 업무를 시행한다. 이중 교정분야는 선형치수·형상·복합형상·기타 길이 관련량·질량·힘·토크·경도 등이며, 시험 및 측정분야는 염수분무시험기·항온항습기·열충격시험기·열분석기·Micro-CT·만능재료시험기·공구현미경·3차원좌표측정기 등을 포함한다.

또한 시제품가공분야는 패턴생성용 쾌속조형기), CNC자동선반, 초음파 다축 가공기 등이며 후처리 가공분야는 초음파 세척기, 원심분리연마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 영어영문학과 그랏찬 전임교수 임용

외국인교수 10명 확보

전남대 최근 외국인 교수를 대거 영입하면서 국제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남대는 최근 미국 출신의 로버트 데이비드 그랏찬(56·사진) 교수를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임용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전남대는 10명의 외국인 전임교원을 확보하게 됐다. 그랏찬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대학 졸업 후 위스콘신대학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미국 위텐버그 대학과 마리볼드윈 대학에서 20년간 교수로 지냈다.

그랏찬 교수는 9월부터 전남대에서 영미 문화 및 영미시, 영어회화작문 등의 과목을 담당하게 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최고 상권 건물 매매

대단위 APT 단지 인접
동림지구 최신식 건물
•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
• 대지 632.9㎡, 건물 2,289.09㎡
• 가격 상담후 결정

월산동 외곽도로변
지상 3층 건물매매
• 대지 374.9㎡
• 건물 299㎡

문의전화 011) 607-5629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기관)

건물 2,000㎡·토지 3,000㎡ 이상 부동산개발(건축허가등)을 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위해서는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2명 이상을 상시 채용하여야 등록 가능!!

◆교육일시 및 장소
- 2010.09.02.(목) ~ 2010.09.07.(화) / (총60시간 강의)
- 광주대학교 극기관 3층 305호

◆교육대상

구분	전문인력의 유형
야간반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 건설기술자(해당력자포함), 자산운영관리인력 등
학·석사 학력자	4년제 대학 해당학과 또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개발업법인 등의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실무경력자	국가·지자체,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금융기관 중 개발업무 관련 종사자, 개발업 관련 법인 대표자 등

※ 수강하고자 하는 분들은 등록 전 수강자격 등에 대하여 사무국으로 문의바람

◆교육비
67만원 (교재 및 간식 등 제공, 강의를 시작한 이후 환불은 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www.gred.kr 참조

※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되려면 국토해양부 지정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원에서 전문교육을 꼭 이수하여야 합니다.

광주대학교 부동산전문인력교육
문/의/전/화 www.gred.kr
•원 장이명규교 수062-670-2421
•부원장강동욱변호사062-233-3119
•사무국김병철 062-233-3119

아담공인중개사

서광주역부근 자연녹지
▫서구 벽진동 서광주역 인근 6,561㎡(1,985평). 3.3㎡당 52만원. 자동차관련시설. 차고지.기타

함평 손불 바닷가 전원주택(교환가능)
▫함평군 손불면 월천리 안악해수욕장 인근 대지 및 전 14,370㎡(4,347평) 연면적 178㎡(53평). 2층. 교환 가능함. 조망권 양호. 앞에 서해바다가 펼쳐있음. 아파트와 교환가능 매매가 3억

쌍촌동 나대지
▫서구 쌍촌동 호남대 건너편 구장군관사 1,845㎡.(558평) 제1종일반주거지역. 10m진입로. 매매가 3.3 ㎡당 160만원. 종교시설. 요양원적지.

호남대(서봉)부근 자연녹지
▫광산구 선암동 호남대옆 3,458㎡ (1,046평)3.3㎡당 110만원 자연녹지지역 개발행위완료. 조망양호.

첨단 보훈병원앞 자연녹지
▫광산구 산월동 보훈병원앞 9,722㎡(2,941평) 3.3㎡당 60만원. 자연녹지지역. 분할가능. 전원주택. 요양원시설. 기타.

무등산 전원주택지
▫북구 화암동 대지433㎡(131평). 전.임1,994㎡(603평) 구 주택2동. 매매가 1억8000만원. 조망 경관양호

건물구함.(병원.요양원. 리모델링용)
광주시내 전지역. 연면적1,000평이상.

☎062-233-2222 / 010-3616-8698

상무랜드공인중개사

건물(임대용,투자용)
■토지 590평 건물 4,400평 (매가200억) 보증금 100억 / 월세 5,000만원
■토지 594평 건물 725평 (매가95억) 보증금 38억 / 월세 2,600만원 융자 12억
■토지 164평 건물 598평 (매가32억) 보증금 5억 / 월세 약 2,000만원 예상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회사시옥, 병원, 학원, 기타부지등)
■834㎡(250평)- 매가 평당 1,300만원(콜럼버스극장과 메가박스중간사거리카도)
■3,224㎡(975평)-평당950만원
■1,651㎡(500평)-평당900만원

건물(임대용,투자용)
■(농장) 73,000㎡(2만2천평)전, 답 평당 10만원(동산동)장기투자로 좋은곳
■(공장가능) 송촌동 자연녹지 7,724㎡(2,200천평)전(매매가평당55만원)
■(상가)상무역주변 1층 약100평 매가 평당2,300만원(브랜드의류등 적합)
■(농장)나주 산포 50,000㎡(1,5000평) 평당35만원
■(주택)안청동 토지843㎡(255평) 주택 35평 매매가 평당 85만원
■(기타용도)동림동 준주거지역(1,352평)매매가 평당 350만원(예식장, 병원적합)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011-609-5221
(상무지구 이바듬 감자탕 1층)

대인동삼일부동산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젼있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X)223-1772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인생열쇠

■ 큰 꿈을 가지고 많은 정성과노력을 다하여도 원하는 바를 성취 못하시는 분
■ 이유없이 삶에 장애가 생기고 병고로 시달리시는 분
■ 현실의 장애를 이겨내고 이루고자 하는 꿈을 꼭 실현하고 싶은 분

소원성취의 길잡이가 되어 드립니다.
(점술원. 역술원 아님. 상담료 없음)

부담없이 차 한잔 하시면서 삶의 지혜를 얻어 가세요

☎ 062-383-8982